

나는 누구인가? 다시 생각해 보는 사서직의 의미



글 | 이 제 환
부산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
jwleeh@pusan.ac.kr

이야기를 시작하며

도서관이란 무엇이며 사서란 누구인가? 문헌정보학을 전공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지만 우리 사회 구성원들의 대부분은 모르고 있거나 때로는 곡해하고 있는 명제이다. 나는 지금부터 이 명제, 즉, 도서관의 가치와 사서직의 의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한다. 그렇다고 해서 거창하게 철학적 담론을 펼치거나 이론적 주장을 늘어놓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 그저 사서라고 하는 우리의 직업적 일상으로 돌아가 우리의 일과를 돌아보면서, 우리는 과연 도서관이라는 직장의 가치와 사서라고 하는 직업의 의미에 얼마나 충실한 지에 대해 피부로 느껴보고자 한다. 단지 그 과정에서 우리의 시각에서 자평하는 것은 자제하고 우리가 “봉사”하는 고객들의 시선을 빌어 우리의 참모습을 돌아보면서, 사서라고 하는 우리의 직업에 대해 겸허히 성찰해 보고자 할 뿐이다.

직업인으로서 우리의 모습을 진지하게 돌아보고자 하는 까닭은 자명하다. 자신이 종사하고 있는 직

업의 사회적 의미를 제대로 깨달았을 때와 그렇지 못했을 때 사이에는 현저한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전자의 인생이 희열로 가득하다면, 후자의 인생은 후회로 얼룩지기 마련이다. 사서직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고 그를 실천하고자 노력할 때 사서의 일상은 기꺼움과 보람으로 채워지지만, 사서직이 단순히 생계의 수단에 그칠 때 사서의 일상은 지겨움과 괴로움으로 점철될 것이다. 내가 20년 가까이 문헌정보학과 교수로 재직하면서 글과 강연을 통해 사서직의 이상이 얼마나 고귀하며 사서의 책무가 얼마나 막중한지를 후학들에게 알려주고자 노력했던 까닭이 여기에 있었다. 사서가 되고자 하는 제자들의 삶이 기꺼움과 보람으로 가득하기를 소망하였기 때문이며, 그를 통해 우리의 천박한 도서관문화가 건강해 지기를 갈망하였기 때문이다.

나를 우울하게 하는 근자의 소식들

막상 사서직의 의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려 하니,

* 이 글은 한국도서관협회 부산·울산·경남지구협의회 콜로키움(2011.11.2. 부산대학교) 자료집에 수록된 내용을 재게재한 것입니다.

근자에 접했던 우울한 소식들이 떠올라 마음이 꿀꿀해진다. 우리 직업을 홀대하는 현상이 우리 사회 도처에 급속히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 사서들은 우리 직업이 전문직이라는 주장을 반세기 넘게 되풀이해 왔지만, 우리 직업을 바라보는 우리 사회의 시각은 오히려 예전만도 못한 듯하다. 서구의 도서관문화를 수입하던 초기에는 그나마 준전문직(?)으로 대우하더니, 그도 잠시, 최초의 「도서관법」(1963)에서는 단순 행정사무직으로 격을 낮추어 놓고, 급기야 근자에 들어서는 임시 기능직 정도로 함부로 대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서구사회와는 달리 도서관문화 자체가 천박하다보니 어쩔 수 없는 현상이라고 치부하기에는 문제의 정도가 심각하다. 왜냐하면 사서를 도서관의 운영주체로 여기려 하지 않는 우리 사회의 시각이 이미 고착화되었다는 판단이 들기 때문이다.

우리 사회가 사서직을 도서관 전문직으로 여기지 않고 있다는 증거는 여러 곳에서 엿볼 수 있다. 그 중에서도 압권은 국가의 경제규모가 커지면서 도서관에 대한 투자가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호조건(?)에서도 사서직에 대한 무관심과 고풍해가 오히려 커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먼저, 도서관에 대한 관심이 긍정적으로 바뀌고 있다는 증거는 주변에서 쉽게 찾을 수 있다. 가령, 집단이기주의가 확산되면서 지역마다 님비(NIMBY) 현상이 이미 짙게 퍼져 있지만, 거주 지역에 도서관이 들어서는 것을 반대하는 주민은 눈을 씻고 찾아보아도 없다. 오히려 도서관이 거주 지역에 있다는 것이 집값 상승에 호재로 작용하다 보니 주택구매자들을 대상으로 “지역에 도서관이 있음”을 홍보하는 사례들이 심심찮게 눈에 뜨인다. 2011년 5월 9일자 조선일보에 실린 다음 기사에 주목해 보자.

...고양 삼송지구를 다시 봐야 하는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다... 대규모 아파트가 들어서는 것은 물론 도로·상하수도 등 기반시설들이 잘 정비된다. 또한 도서관 등의 공공시설과 각종 편의시설이 들어와 주거환경이 좋은 조건을 갖추게 된다...

어디 이뿐이라! 동네에 작은도서관을 설립하려는 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것에서 보듯이 거

주지 가까운 곳에 도서관을 설립하고자 나서는 주민이 늘고 있다. 도서관에 대한 우리 국민의 관심이 이처럼 커져가고 있는 가운데 기존 도서관들 또한 이러한 상황에 대처하느라 여러모로 분주하다. 공공도서관은 개관시간을 야간까지 연장하고 나섰고, 대학도서관과 학교도서관의 지역 주민에 대한 자료실 개방이 점차 확산되고 있다. 외형적으로나마 고무적이다. 무엇보다도 “낡은 책을 모아놓은 퀘퀘한 분위기의 독서실” 정도로 치부되던 우리의 도서관이 비로소 그 존재감을 우리 사회의 구성원들에게 드러내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고무적이다. 도서관이 우리 국민의 삶과 일상에 조금씩 다가서고 있다는 증표가 아니겠는가?

그런데 이러한 현상을 바라보면서 마냥 즐거워할 수만은 없는 것이 우리 사서들의 처지이다. 도서관에 대한 우리 사회의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고 해서 사서직에 대한 관심이 함께 증폭되고 있는 것은 결코 아니기 때문이다. 사서직에 대한 이해가 개선되기는커녕 도서관 운영자로서 사서의 전문성을 무시하거나 부정하는 경향이 우리 사회에선 오히려 심화되고 있다. 지역과 관종을 불문하고 전국 도처에서 도서관의 운영을 사서가 아닌 다른 이들에게 맡기거나 사서직의 규모를 축소하고 비정규직화하려는 음모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제 그러한 사례를 찾으려고 멀리 수도권까지 갈 것도 없다. 상대적으로 안전(?)지대로 여겼던 부산과 울산 그리고 경남 지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최근의 사건들은 사서직의 직업적 전문성은 차치하고 직업적 안정성이 얼마나 취약해지고 있는지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가까운 예를 들어보자. 작년에 부산 사하구에 신설된 다대도서관은 개관 이래 행정직 관장과 소수의 비정규직 사서에 의해 변칙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지역의 문헌정보학계는 물론이고 지역 언론과 정치인까지 나서서 인사정책의 부당함을 성토했지만 사서직의 전문성을 우습게 여기는 자치단체장의 고집을 꺾는데 실패하였다. 그러한 갈등 끝에 결국 “무자격자들(?)”의 주도 하에 다대도서관은 개관하였는데, 흥미롭게도 도서관 전문가들(?)의 우려와는 달리 다대도서관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관심과 애정은 나날

이 뜨거워지고 있다. 지역 신문에 보도된 관련 기사와 인터넷에서 접하게 되는 도서관 이용자들의 방문 기에는 다대도서관에 대한 그들의 관심과 애정이 넘쳐난다. 지역 주민들에게는 도서관이 누구에 의해 운영되는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았다. 도서관의 관장이 행정적이든 사서직이든, 근무하는 사서가 몇 명이든, 그리고 그들이 정규직이든 비정규직이든 지역 주민들에게는 중요하지 않았다. 지역 주민들에게 필요한 것은 낙후된 거주 지역에 들어선 도서관 시설이지 사서에 의해 제공되는 서비스는 애초부터 그들의 기대에 없었다.

어디 부산의 다대도서관뿐이겠는가? 울산을 대표하는 공공도서관의 하나인 남부도서관은 2011년 5월 16일 현재, 모기관이 교육청에서 구청으로 줄지에 바뀌게 되면서 재직하던 사서들이 뿔뿔이 흩어져야 할 운명에 처해있다. 지역 언론이 나서서 도서관 이관 시비의 단초가 되었던 시장과 교육감의 “감정 싸움”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였지만, 한번 시작된 “고래”들의 힘겨루기는 결국 “새우의 등”을 터뜨리는 지경에 이르렀다. 그러나 상황이 이렇듯 긴박하게 돌아가고, 시청과 교육청의 고위 관료에 의해 사서의 직업적 전문성이 처참하게 짓밟히고 있는데도 지역의 사서들 사이에서는 집단적 저항조차 표출되지 않고 있다.¹⁾ 지역의 일부 시의원들이 이번 조처의 부당성을 지적하면서 대안 모색에 나서고 있지만 대부분의 사서들은 공연히 저항하다가 “공무원”이라는 안정된 밥줄마저 잃게 될까봐 직업적 전문성이고 자존심이고 모두 팽개치고 납작 엎드려있다.²⁾

도서관운동을 한다고 천명해 놓고도 내가 활동하고 있는 지역에서 발생한 이번 사태를 그저 무기력하게 지켜볼 수밖에 없었던 내 마음을 더욱 아리고 비참하게 만드는 것은 이번 사태를 바라보는 울산 지역의 여론이었다. 2011년 4월 29일자 동아일보 기사에는 이번 사태를 바라보는 지역 언론의 시각이 고스란히 녹아있다. 그들은 이번 관할기관의 이전이 공공도서관

운영의 효율성을 증대하고 주민을 위한 서비스를 개선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는 견해를 내비치고 있다. 그러한 그들에게 사서의 전문성에 대한 고려는 애초부터 존재하지 않았다. 전문(素文)을 인용하기에는 다소 길어 여기에 그 기사의 요체를 옮겨본다.

남구청장은 “도서관 운영이 어려운 것은 시설규모에 비해 많은 인력을 배치했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남부도서관 소유권이 있는 남구청이 도서관을 직접 운영하겠다”며 “도서관장을 현재의 부이사관(3급)에서 사무관(5급)으로 낮추고, 전체 직원도 35명에서 16명으로 하향 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도서관 운영난이 ‘과다 인력과 직제 인플레이션’ 탓이라고 본 것이다. 다음으로 는 도서관 프로그램, 시교육청 도서관이 운영하는 프로그램 가운데는 ‘좋은 학부모교실’, ‘평생교육축제’, ‘문화학교’ 등이 있다. 도서관법에 근거한 사업이지만 이와 유사한 프로그램은 교육청 산하 학부모지원센터나 주민자치센터, 종합복지관 등에도 마련돼 있다. 도서관이 다른 기관과 엇비슷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많은 인력을 부린다면 고칠 필요가 있다. 남구청장은 “남부도서관이 운영하는 프로그램은 주민자치센터나 종합복지관으로 넘겨 시민 불편이 없도록 하겠다”며 “(사서)인건비를 줄여 책을 더 구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나름대로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교육예산은 교육 본연의 업무에 쓰이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이다.

위의 신문 기사에서 드러나듯이 울산시 남구청의 관료들은 소수의 사서와 계약직원만으로도 남부도서관을 충분히 운영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늘 그러했듯이 지자체 관료들의 시각에 비치는 공공도서관은 전문적으로 운영해야 할 시스템이 아니라 ‘관리해야 하는 시설’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안타깝지만 울산시 남구청의 계획은 결정적 반전이 없는 한 실행에 옮겨질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그들이 공연한 대로 사서 인력을 대폭 감축하더라도 남부도서관은 그럭저럭 관리되어 질 것이다.³⁾ 특히, 정규직 사서에

1) 사건이 발발하고 한 달 가까이 되어서야 ‘울산사서협의회’ 명의의 항의 성명서가 발표되었다.

2) 필자는 5월 19일 울산시의회 이은영 의원이 주최한 ‘전문가 초청 세미나’에 참석하여 이번 사태가 “공공도서관과 사서직에 대한 우리 사회의 무지와 몰이해”에서 비롯된 부당한 처사임을 성토했으며 울산 지역 공공도서관의 건강한 발전을 위해 정치가, 행정관료, 언론, 시민단체, 지역 주민, 그리고 사서가 함께 노력할 것을 촉구하였다.

3) 2011년 10월 현재, 울산 지역에서 벌어졌던 공공도서관의 관할 이전을 둘러싼 갈등은 일단 봉합되었다. 울산시장과 교육감 그리고 구청장 등이 합의 하여 관할권 이전에 대한 논의를 일체 중지하고 남부도서관은 원래대로 울산교육청에서 관리·운영하기로 합의하였다.

대한 인건비를 줄여 책의 구입을 늘린다면 남구의 주민들은 오히려 반가워할지도 모른다. 그곳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존재감조차 미미했던 사서들이 아니라 보다 많은 읽을거리이며, 사서 없이도 또는 소수의 사서만으로도 그들이 그동안 도서관에서 받아왔던 ‘하찮은’ 서비스는 충분히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명색이 도서관운동가라는 내가 ‘이번 사태의 부당성’을 목청 높여 외칠 수만은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지역 주민들에게는 도서관의 시설과 자료가 중요하지 사서의 존재와 숫자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는 상황에서, 어설픈 논리를 펼치다가는 ‘직업적 이기심에서 비롯된 집단이기주의’로 매도당하기 십상이기 때문이다.

‘보통’ 시민의 눈을 통해 본 사서의 모습

사서에 대한 이러한 무관심과 몰이해가 어찌 부산과 울산 지역에만 퍼져있겠는가? 주지하다시피 1990년대 중반부터 수도권을 비롯한 전국 각지에서 확산되어온 공공도서관의 민간위탁과 사서직의 감축 그리고 비정규직화는 사서를 바라보는 우리 사회의 시각이 전혀 긍정적이지 않음을 명료하게 보여준다. 우리 국민 대부분은 사서라는 직업에 대해 “도서관에서 책을 지키는 편한(?) 직업” 정도로 여길 뿐 사서의 업무에 대해서는 무지하며 관심조차 없다. 전문직 사서가 제공하는 제대로 된 도서관 서비스를 받아본 경험이 거의 없는 우리 국민에게 있어 도서관은 어차피 이용자가 스스로 알아서 모든 것을 해결해야 하는 ‘셀프 서비스 시설’인데, 사서의 존재가 그들에게 긍정적으로 각인되어 있기를 어찌 감히 기대하겠는가? 도서관이 거주지 가까이에 있고 도서관에 책만 많으면 되지, 사서에게 기대하는 서비스가 워낙 없다보니 사서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공공도서관의 주요 고객 집단 중의 하나인 가정주부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보자. 다음에 인용하는 내용은 가정주부 중에서도 초등학생을 자녀로 둔 어머니들의 공공도서관에 대한 인식을 조

사한 내용인데, 공공도서관과 사서를 바라보는 지역 주민의 시각이 생생하게 드러나 있다.⁴⁾

어머니들은 도서관 시설 중에서 어린이실이나 (평생교육강의실외에는 거의 가본 적이 없다고 하였다. 서가는 주변에만 가도 공연히 주눅이 들고, 자동화목록은 사용이 두렵기도 하지만 원하는 자료를 찾는데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연속간행물실 혹은 디지털자료실은 전문가들이나 이용할 것 같은 느낌이 들어 가본 적이 없다고 하였다.

가끔이라도 도서관을 찾는 어머니들은 주로 책을 대출하거나 평생교육강좌를 수강하는 정도였다. 그러나 대출할 책을 선택하거나 강좌를 선택할 때 사서의 안내나 도움은 거의 받지 않고 있었다. 그들에게 있어 도서관은 스스로 알아서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셀프 서비스 시설’이지 자신들의 요구를 표현할 수 있는 곳으로 인식되지 않고 있었다.

어머니들은 사서들이 책과 가까이 있는 사람이긴 하지만 책의 전문가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어린이실에 근무하는 사서는 어린이의 발달단계별 특성이나 독서상황별 문제해결에 밝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어린이실 사서들에게서 그러한 전문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었다. 그렇다 보니 아이들을 위한 책의 선택에 있어 사서에게 도움을 청해야겠다는 생각은 애초부터 갖고 있지 않았다.

어머니들은 참고서비스가 도서관의 주요 업무임을 알고는 높은 관심을 보였다. “심부름센터도 아닌데 내가 알고 싶은 어떤 것이든 찾아달라고 부탁해도 되느냐?”며 반문하였다. 한 어머니는 도서관에서 ‘정보서비스’란 낱말을 본 적이 있었는데 ‘거창한’ 또는 ‘고급’ 정보만 신청해야 한다는 느낌을 받아 처음부터 관심을 두지 않았다고 하였다.

도서관에서 사서가 하는 일에 대해 무지하거나 곡해하고 있는 이용자 집단이 과연 여기에 인용한 어머니들뿐이겠는가? 우리나라 ‘보통’ 어머니들의 사서를 바라보는 시각이 이렇다면, 아마도 공공도서관이 단골로 삼고자 하는 대부분의 주민들의 시각 또한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봉사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주민들의 시각이 이와 같을 진데, 어찌 도서관은 반

4) 이 면담 내용은 2011년 6월 현재, 부산대학교 대학원 문헌정보학과에서 석사학위논문 준비하고 있는 김수미 선생이 부산지역에 거주하는 어머니들을 만나서 조사한 내용이다.

드시 사서에 의해서 운영되어야 하며, 충분한 규모의 사서를 확보하고 있어야 하며, 그 사서들은 반드시 정규직이어야만 한다는 주장을 펼 수 있겠는가?

지금 우리 사서들에게 절실한 것은?

어찌 특정 직업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에게 '직업적 소명에 충실한 참된 봉사자'가 되라고 권할 수 있겠는가? 열심히 일하는 것이 사람의 본성이라면, 어찌 조직원들의 동기부여를 목적으로 하는 그 많은 경영이론이 필요하겠는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생계를 위해 어쩔 수 없이 일을 하며, 사서라고 해서 다를 게 없다. 아마 우리 사서들 중에는 어찌하다보니 '도서관 일'을 평생의 업으로 삼은 이들도 있을 것이요, 단순히 책이 좋아 서가에 파묻혀 지내하고자 사서직을 선택한 이들도 있을 것이다. 아마도 '20 대 80의 이론'은 우리 사서집단에도 어김없이 적용될 것이며, 80%에 이르는 대다수의 사서들은 평온한 직장생활을 꿈꾸면서 커다란 변화없이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기를 바랄 것이다. 따라서 그런 그들에게 "직업적 존재감을 드러내라"든지, "직업적 전문성을 개발하라"든지, "도서관서비스의 혁신에 앞장서라"고 권고하는 것은 격려가 아니라 차라리 '삶의 평온'을 깨뜨리는 채찍으로 여겨질지도 모른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무한경쟁'이 지배 철학으로 자리 잡은 우리 사회에서 상대적으로 편하고 안정적인 직업으로서의 사서직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 사서들은 그대로 있고 싶어도 주변이 우리를 용납하지 않고 있다. 우리 동료의 일부는 이미 도서관에서 쫓겨나고 있으며, 우리의 후배들은 임시직이라도 구하려고 목을 매고 있다. 이렇듯 비관적인 상황을 반전시키려면 싫든 좋든 우리 사서들이 변해야 한다. 즉, 도서관 전문직으로서의 사서의 존재감을 세상에 드러내고 사서의 유용성을 주변 사람들에게 입증해 보여야 한다. 만약 그렇지 못한다면, 사서직의 위축은 가속될 것이며 결국에는 우리가 주장하는 도서관 전문직으로서의 사서직은 이 땅에서 영원히 자취를 감추고 말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역사에는 사회 구성원들이 존재의 필요성에 의문을 가졌

던 많은 직업들이 자취를 감춘 사례들이 넘쳐난다.

그럼 이쯤에서, 그래도 사서로 살아남아서 도서관 전문직으로서 가치와 의미를 우리 사회에 드러내 보이기를 갈망하는 '뜻있는' 동료 사서들에게, 비록 부족하지만 25년 남짓 도서관학을 공부하면서 내가 깨달았던 '사서로 살아남기 위해 무엇을 해야만 하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한다. 나는 사서로서의 자긍심과 자부심 그리고 자신감을 갖기 위해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사서가 갖는 직업적 의미를 명확하게 이해하여 각자의 가슴에 새기려는 노력이라고 믿고 있다. 사서의 직업적 의미에 관한 역사적, 이론적 설명은 2010년 말에 마이클 고먼(Michael Gorman)의 책을 번역하여 『도서관의 가치와 사서직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출판해 놓은 것이 있으니 일독을 권하고 싶다. 단지 여기서는 지난 2002년에 부산지역에서 활동하는 사서들 앞에서 "다시 생각해 보는 도서관의 이념과 사서의 정체성"이라는 제목으로 강연했던 내용의 일부를 회고하면서 내가 생각하는 '사서의 직업적 의미'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한다.

나는 도서관을 도서관이게 하는 힘은 도서관이 갖는 공익성과 민주성에 있다고 믿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도서관의 역사를 알렉산드리아도서관과 같은 고대의 도서관까지 거슬러 올라가 잡지만, 나는 그러한 도서관들은 "소수의 정치가나 권력자를 위한 개인 혹은 집단 문고"라고 여기고 있다.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공익성과 민주성에 기반한 근대 도서관은 17세기 프랑스대혁명 시기에야 비로소 모습을 나타냈다. 당시 프랑스 재상인 마자랑의 개인문고를 관리하던 노오데(Gabriel Naude)는 "도서관은 특권 귀족계급이나 정치권력자의 전유물이 아니라 민중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는데, 그는 도서관의 기본 임무는 인류의 공동 유산인 책의 자유롭고 평등한 유통을 통해 민중의 지적 자유와 평등을 신장하는데 있다고 보았다. 노오데의 이러한 사상은 프랑스는 물론이고 독일과 영국 그리고 미국 등지로 파급되어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도서관과 도서관학의 이념적 뿌리가 되었다.

따라서 근대 도서관의 이러한 이념적 뿌리를 잘 알고 있는 서구의 사서들이 그들 직업의 의미를 민중의

지적 자유와 평등을 신장하는데서 찾고자 한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다. 그들이 다양한 철학과 사상 그리고 관점과 견해를 다룬 정보자원을 체계적으로 수집하여 관리하면서, 그러한 정보자원에 대한 민중의 자유롭고 평등한 접근을 보장하고자 노력한 이유가 여기에 있었다. 민중의 판단력을 오도할 특정 사상이나 관점에 일방적으로 치우치기보다는 민중의 지적 판단력을 성숙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는 정보자원을 선별하여 제공하고자 노력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특히, 소수 권력자나 지배 계층에 의해 배타적으로 점유된 정보자원을 민중이 자유롭게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의 입안과 집행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자 노력한 이유가 여기에 있으며, 이를 통해, 양지에 있는 자들보다는 음지에 소외된 자들의 지적 권익을 보호하고 신장하고자 노력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어떠한가? 혹시 서구사회로부터 도서관을 수입해 오면서 그 외형을 들여오는데 급급한 나머지 도서관의 내면적 가치를 받아들이는 일에 소홀했던 것은 아니었던가? 혹시 서구의 도서관을 수입해 오면서 도서관에는 사서가 있어야 한다는 것까지는 알았지만, 사서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 이유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던 것은 아니었을까? 혹시 도서관에서 사서가 하는 일이 장서를 개발하고, 목록을 만들고, 참고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라는 것까지는 알았지만, 사서가 그러한 일을 통해서 구현하고자 하는 궁극적인 가치가 무엇인지는 몰랐던 것이 아니었을까? 만약 도서관의 내재적 가치와 사서직의 의미에 대해 제대로 알고 수입했다면, 우리의 도서관과 우리의 사서가 지금과 같은 천박한 모양으로 있을 수는 없다. 만약 도서관문화의 수입이 '원형대로' 이루어졌다면, 도심의 중앙에 건강하게 자리 잡은 공공도서관의 모습을 우리는 일상적으로 마주칠 수 있어야 하며, 민중의 지적 자유와 평등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사서들의 모습에 익숙하여야 하며, 그러한 사서들에 대한 시민의 존경이 충만한 사회에서 우리는 호흡하고 있어야 한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나는 도서관의 가치와 사서직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고 사서로서의 신성한 책무를 수행하고자 노력하는 사서들을 우리 사회에서 별

로 만나지 못했다. 우리 도서관계에는 자신에게 주어진 신성한 책무는 소홀히 하면서 개인적 이해관계에 집착하는 사서들이 너무도 많이 눈에 뜨인다. 심지어 뜻있는 시민운동가들이 나서서 민중의 지적 자유와 평등을 위한 도서관과 사서의 역할을 주문하는데도, 오히려 뒷걸음치며 서가 사이에 깊숙이 숨어드는 사서들이 너무도 많다. 물론 그 일차적 책임은 그들을 사서로 훈련시켜 도서관에 진출시킨 교육자들에게 있겠지만, 교육자들의 무지와 태만 못지않게 자신의 직업적 책무를 제대로 이해하고 실천하는데 게을렀던 사서들의 책임 또한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러하기에 시민들의 존경은커녕 자신들의 존재 이유에 의문을 제기하는 행정가, 정치인, 언론인 등의 노골적인 무시와 홀대에도 아무런 저항조차 못하고 있는 것이다.

역사적으로나 이론적이나 사서라는 직업은 분명히 전문직이다. 사서가 다루는 것은 책이 아니라 지식이며, 사서가 근무하는 도서관은 '죽은 지식의 보관 창고'가 아니라 '살아있는 지식의 유통 공간'이며, 사서의 업무는 물리적 영역이 아니라 정신적 영역에서 우선적으로 이루어지며, 사서의 존재 이유는 인류 기록의 관리자를 넘어서 민중의 지적 자유와 평등을 보호하고 신장하는데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대부분의 우리 사서들은 아직까지도 책에 집착하고 있으며, 죽은 지식의 보관 창고에 숨어 있으며, 물리적 업무에서 헤어날 수 없으면서, 민중의 지적 자유와 평등을 수호하는 전문인으로서의 책무를 망각하고 있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우리 사서들은 이러한 직무유기의 늪에서 벗어나야 한다. 그래야만 우리 직업을 좌지우지하면서 단순한 기능직, 심지어는 임시직으로 대체하려는 무지몽매한 행정가, 정치인, 언론인을 비롯한 여론 주도층의 곡해와 편견을 바로 잡을 수 있다.

그러나 도서관의 가치와 사서직의 의미에 대한 깨달음만으로 우리 사서집단이 봉착해 있는 현재의 난관을 온전히 넘어설 수는 없다. 직업적 정체성에 대한 깨달음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스스로 직업적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직업의 이미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다양하다. 그 중에서도 직업에서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은 직업에 대한 대중들의 이

미지 형성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우리가, 비록 존경까지는 아니더라도, 의사나 법률가 또는 성직자와 같은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비종 있게 보는 까닭은 그들이 하는 일이 사람의 육체적, 정신적, 그리고 영적 삶에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다. 앞서 나는 사서직의 의미는 민중의 지적 자유와 평등을 신장하여 궁극적으로는 민중의 지적 건강을 보호하는데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처럼 우리의 직업은 민중의 정신적 삶과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으며, 그러하기에 의사, 법률가, 성직자와 마찬가지로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적인 지식 기반'을 독자적으로 갖추고 있는 것이며, 그 지식 기반을 갖추기 위한 대학교육 이상의 장기간의 교육과정과 실무과정을 마련하고 있는 것이다.

평소 나는 문헌정보학과 학생들에게 사서에게 가장 중요한 지식 기반은 정보자원에 대한 지식임을 강조한다. 흔히 우리 학문의 핵심 개념으로 정보를 내세우지만 정보가 갖는 포괄성과 추상성으로 인해 정보를 우리 학문만의 고유 영역으로 붙잡아놓는 것은 애초부터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우리 사회에는 정보가 자신들의 것이라고 주장하는 분야나 영역이 너무도 많다. 가령, 유전자정보에서 시작하여 컴퓨터정보에 이르기까지 세상은 그야말로 정보로 넘쳐난다. 이러한 판에 "정보는 우리만의 것"이라는 주장은 실질적으로 효력이 없다. 그러나 정보가 아닌 정보자원에 관해서는 우리의 전문성과 영향력이 거의 절대적이다. 이론적으로나 실무적으로나, 정보자원을 개발하고, 조직하고, 관리하고, 보존하고, 제공하는 업무를 종합적으로 관장하면서 정보자원의 본질과 속성에 대해 체계적으로 연구해온 영역은 문헌정보학과 도서관학에 없다. 그러하기에 나는 정보자원에 대한 지식은 사서를 전문직으로 만드는 배타적이고 독점적인 지식 기반이라고 굳게 믿고 있다.

정보자원이라고 해서 너무 거창하게 생각할 것은 없다. 내가 말하는 정보자원은 사서들이 일상적으로 대하는 단행본이나 연속간행물 같은 소위 1차 자료와 각종 메타 정보원을 포함하는 2차 자료를 총칭하는 개념이다. 그러한 정보자원은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보의 부족으로 인해 겪게 되는 각종

고민을 해결하는데 직간접적으로 도움을 준다. 여기서 고민이라고 해서 반드시 심각하게 여길 것은 없다. 가슴이 벅찰 정도로 즐겁거나 슬픈 일, 머리가 부서질 정도로 복잡하고 어려운 일, 때로는 무료하고 지루한 상태 자체가 사람들에게는 고민거리가 될 수 있다. 그러한 고민에 부딪혔을 때 사람들은 무언가 결정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는데, 그럴 때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정보이며 그러한 정보를 담고 있는 객체가 바로 정보자원이다. 따라서 사람들이 일상생활이나 업무수행 과정에서 당면하게 되는 다양한 고민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는 정보를 품고 있는 원천(즉, 정보자원)에 대해 "많이 그리고 정확하게 알고 있다는 것"은 대단한 지식 기반이 되는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대부분의 도서관에서 사서가 수행해야 하는 세 가지 핵심 기능은, 첫째, 고객의 요구에 적합한 정보자원을 선별하여 장서를 구축하고, 둘째, 고객이 장서에 접근하여 스스로 활용할 수 있도록 탐색도구를 만들어 주고, 셋째, 고객의 의사결정이나 문제해결 과정에 직접 개입하여 관련 정보자원을 제공하거나 연계해 주는 것이다. 우리는 이를 장서개발, 자료조직, 그리고 참고봉사라고 칭하는데, 이 모든 업무는 정보자원을 떠나서 생각할 수 없다. 이처럼 사서에게 있어 정보자원에 대한 지식은 대단히 중요한 자산인 것이다. 여기서 문제는 사서에게 요구되는 정보자원에 대한 지식은 단순히 정보자원의 존재에 대해 '아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보자원의 내용에 대한 장악까지를 의미한다는 데 있다. 내용을 알아야 정보자원의 선별이 가능해 지고, 선별한 정보자원의 조직이 가능해 지며, 고객의 요구에 적합한 정보자원의 제공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이처럼 장서개발과 자료조직 그리고 참고봉사는 정보자원을 매개로 하여 서로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으며, 이는 장서개발과 자료조직을 모르는 사서가 제대로 된 참고봉사를 할 수 없는 까닭을 잘 설명해 준다.

사서라면 누구나 숙지하고 있는 사실을 이처럼 장황하게 늘어놓는 까닭은 사서의 모든 업무는 정보자원을 중심으로 형성되고, 정보자원에 대한 지식은 사서의 직업적 전문성을 보장하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

임을 거듭 강조하고자 함이다. 그렇다면, 사서에게 정보자원에 대한 지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우리 주변의 사례를 들어보자.

가령, 근자에 우리 도서관계에서 확산되고 있는 독서치료서비스 또한 정보자원에 대한 사서의 지식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다.⁵⁾ 고객이 당면해 있는 문제를 풀어가는데 적합한 독서목록(즉, 정보자원)이라는 치료제를 찾아내고 그러한 치료제를 효과적으로 복용하는 방법을 고객에게 일러줄 수 있는 역량이 없다면, 독서치료서비스는 감히 생각조차 할 수 없다. 즉, 정보자원에 대한 지식이 독서치료서비스를 가능하게 하는 역량 중의 하나라는 이야기이다. 또한, 역설적이게도 근자에 들어 도서관의 새로운 기능인 것처럼 강조되고 있는 평생교육 업무도 크게 다를 게 없다. 도서관의 교육적 기능은 태생적인 것이며, 오래 동안 도서관교육의 핵심은 고객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필요한 정보자원을 인식하고 스스로 접근하여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하는데 있었다. 그리고 그 연장선에서 공공도서관은 지역 주민을 위한 평생교육기관으로 발전해 왔다. 이처럼 도서관의 평생교육 또한 정보자원에 대한 사서의 장악력이 없다면 애초부터 불가능한 도서관의 핵심 기능이었다.

이러한 독서치료나 평생교육의 사례에서 우리가 얻어야 하는 또 하나의 교훈은 정보자원에 관한 사서의 전문성은 기존하는 정보자원에 대한 장악력만으로는 충분히 담보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더불어 요구되는 것은 새로운 정보자원의 발굴 혹은 생산 능력이다. 가령, 독서치료 행위에 있어서 사서의 개입을 정당화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질병의 유형에 따른 치료제(즉, 문제 상황별 독서목록)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갱신해 내는 것이다. 그래서 정신과 의사들조차 사서들이 개발한 독서목록을 환자의 치료에 활용하게 만든다면 독서치료서비스를 위한 사서의 개입은 정당성을 공고히 하게 된다. 독서치료서비스가 생소하고 버겁게 느껴진다면 독자상담서비스를 위한 문제 유형별 목록의 발굴과 생산만으로도 충분하다. 주지하디시피 '상황별 독서목록'의 개발은 이미

오래 전부터 사서의 핵심 업무가 아니었던가? 어디 그뿐이라! 우리가 알고 있는 주요 서지, 비평, 그리고 특수 자료에 대한 목록의 상당수가 사서들의 창작품이었음을 우리는 기억하여야 한다.

그러나 문제는 서구의 사서들은 이미 1세기가 넘게 수행하고 있는 이러한 업무를 우리 사서들은 최근 까지도 자신들의 업무로 여기지 않아 왔다는데 있다. 독자상담을 위한 상황별 목록은 차치하고, 우리 사서들은 그들이 구축해 놓은 장서의 세계로 고객을 안내하는 도구(즉, 도서관목록)의 생산조차 기피하는 납득할 수 없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현재 대부분의 도서관에서 목록은 생산의 대상이 아닌 구입의 대상으로 전락해 있다. 사서의 가장 중요한 직무 중의 하나가 스스로에 의해 유기되고 있는 것이다. 도서관목록에는 고객 집단에 대한 사서의 시각과 지식 세계에 대한 사서의 철학이 동시에 녹아있다. 도서관목록은 말 그대로 지식의 본질을 관통하는 프리즘인 것이다. 서구의 도서관에서 많은 학자들이 전공 분야의 도서관 목록만을 참조하면서도 훌륭한 연구결과를 생산해온 까닭이 여기에 있다. 목록은 지식의 세계를 축약해 놓은 대리물이자 안내자였기에, 그들은 목록을 활용해 특정 분야의 지식 세계를 향해하면서 연구할 수 있었던 것이다.

서구의 사서들이 해온 것처럼 건강한 목록을 개발해 놓았을 때 비로소 그 목록을 활용하여 고객의 정보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주는 다양한 세부 목록들을 마음껏 생산해 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그러한 목록의 실물 도서를 별도의 서가에 전시하여 고객들로 하여금 이용하게 하는 연계 서비스 또한 가능해 지는 것이다. 어디 그뿐이겠는가? 공공기관이나 사회의 각종 단체들로 하여금 사서들이 추천한 양서 목록을 참조하여 그들의 회원에게 독서를 권유하게 하고 '우수도서'를 선정하는 기준으로 삼게 할 수도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나는 우리 사서들이 최소한 대형서점들이 제작하고 있는 자료 목록의 수준을 넘어서는 고품질의 목록을 생산하는 날이 어서 오기를 손꼽아 기다리고 있다. 더불어 욕

5) 여기서는 독서치료가 과연 사서의 역량으로 가능한 서비스인지에 대한 논의는 자제한다. 이에 대해서는 "한국 도서관계에서 독자상담과 독서치료의 의미"를 참조하기를 권한다.

심을 부리자면, 신간 서적에 대한 서평을 참조하여 도서관 장서를 개발하기보다 신간 서적에 대한 서평을 손수 쓰는 사서들이 우리 주변에 점차 많아지기를 간절히 고대하고 있다. 즉, 서구사회에서처럼, 책(정보자원)의 진정한 전문가가 우리 사서들 사이에서 많이 배출되기를 갈망하고 있다.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만약 세상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마주치는 고민이 동일해서 그들이 필요로 하는 정보 또한 동일하다면, 세상의 모든 도서관들이 독자적인 장서개발, 자료조직, 그리고 참고봉사를 위해 고민해야 하는 당위성은 사라진다. 만약 그렇다면 세상에는 오직 소수의 사서만이 필요할 것이며 대부분의 도서관에서 사서의 업무는 자동화기계에 의해 대체되어질 것이다. 마치 은행의 많은 창구직원이 ATM(현금자동인출기)으로 대체된 것과 마찬가지로... 그러나 우리가 익히 알고 있다시피, 연령, 신분, 직업, 경제력, 취향, 그리고 거주지 등에 따라 사람들의 고민은 다양하고 그들이 필요로 하는 정보 또한 다양하다. 그러하기에 봉사하는 이용자 집단의 다양한 요구에 따라 도서관은 다양한 장서를 구축해야 하며, 그러한 장서를 이용자 집단의 지적 수준과 정보행태에 적합하게 조직하여야 하며, 그러한 장서를 활용해 이용자 집단의 정보갈증을 풀어주어야 하는 것이다.

나는 사서가 어떤 장서를 구축하느냐에 따라 도서관 이용자의 정치적 성향조차 달라질 수 있다고 믿고 있다. 장서의 내용이 사람의 의식을 바꾸기 때문이다. 나는 또한 사서가 목록을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 도서관 이용자의 지식 체계가 달라질 수 있다고 믿고 있다. 목록은 지식의 본체에 접근하게 하는 길

잡이이기 때문이다. 나는 특히 사서가 참고봉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도서관 이용자의 정신 건강이 달라질 수 있다고 믿고 있다. 소위 정보시대에 우리가 앓고 있는 정신적 질환의 대부분은 정보의 부족이나 과잉 혹은 왜곡에서 비롯된다고 믿기 때문이다. 이처럼 나는 사서의 존재는 도서관 이용자의 삶의 질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준다고 믿고 있기에 우리 사서들이 자신에게 주어진 책무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실천해 나가기를 간곡히 당부하는 것이다.

이제 이쯤에서 이 글을 마무리하면서, 나는 우리 사서들이 우리나라 교육 전문직의 참담한 경험을 타산지석의 교훈으로 삼기를 권고한다. 과거에는 그림자조차 밟는 것을 어려워하던 교사의 위상이 오늘날 어찌 추락하였는가? 많은 교사들은 자신들의 위상 추락을 교육정책의 탓으로 돌리지만, 나는 그 근본적 책임은 교사들 자신에게 있다고 보고 있다. 많은 교사들이 교사직의 직업적 의미를 스스로 망각하고 '교육자'로서의 책무를 이행하는데 소홀했기에 사회적 존경을 잃어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어디 교사직뿐이겠는가? 소위 전문직 종사자들이 직업의 존재 의미를 망각하고 책무를 이행하는데 소홀함으로써 사회적 비난의 대상이 되는 사례를 우리는 주변에서 심심치 않게 목격하지 않는가? 내가 동료 사서들에게 우리 직업이 갖는 의미를 되새기면서 책무에 충실하자고 거듭 당부하는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다. 그렇게 해야만 비로소 우리의 직업적 위상이 튼튼해지는 것은 물론이고, 우리의 도서관문화가 활짝 꽃피울 수 있으며, 지식의 참의미를 왜곡하고 있는 우리 사회가 지적 건강을 회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서 여러분의 발심과 건승을 빈다. 